

제 144 호

연중 제 22주일

1975. 8. 31.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집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론□



제자의 길

박중신 신부

사람은 누구나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한다. 많은 돈을 벌고 크게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고 짧은 세상살이를 가능한 한 즐겁게 보내려 한다. 자기만이 살기위해서 사는 세상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장엄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스승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들었던 수석제자 베드로가 무서운 책망을 듣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있다. 베드로는 스승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거나 비참하게 수난을 당해야 한다는 스승의 태도를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책망을 받는 이유는 스승의 의도를 명찰하지 못한 몽매함에 있었다.

신자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버림받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룩하였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움으로 인간의 비참에 동참하심으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느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계시는 인간역사에 전무후무한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결코 비판론자가 될 수 없다. 자아포기란 어떤 자학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세상과의 결별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알거지가 되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든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자의 길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언제나 어려웠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획득할 수 있다는 역설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있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는 허약의 상징이 아니다.

<입실 전주교 주일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 기도서 P 424

(1) 개회식

□**입당송**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어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삐 여기소서. 주여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당신께 비는 자를 크게 어여삐 여기시나이다.

(2) 말씀의전례

□**제1독서** (예레미야 20 : 7-9)

야훼의 말씀이 내게는 조춧거리가 되었다.

□**창제송** ○하느님 내 하느님,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 물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

□**제2독서** (로마 12 : 1-2 성서 p 361)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우리 마음의 눈을 비추시어, 우리 성소의 희망을 알게 하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6 : 21-27 성서 p 39)

나를 따르코자 하는 자는 자신을 끊어 버리라.

□신자들의 기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당신께 의탁할 수 있는 신앙과 용기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지도자들을 위하여 비오니 주여!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권위임을 깊이 깨달아 올바르게 권위행사를 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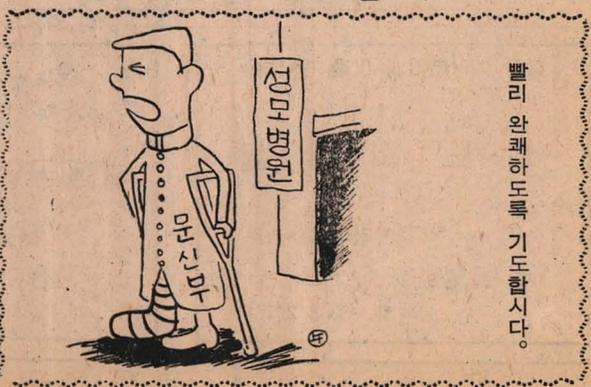
3.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비오니 주여!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

4. 죽은 이들을 위하여 비오니, 전구하는 우리들을 보시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제송**. 행복하여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리니.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숲정이 산책





참아주는 사랑

한 시 문 신 부

“당신들은 서로 사랑하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나처럼 이렇게 꼭 행하 라시던 예수님의 목메인 사랑의 목소리다.

인간에게 있어 사랑하는 일처럼 쉽고도 또 어려운 일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의미를 각양 각색으 로 이해하는 것 같다. 사랑에 대하여 그 어떠한 정의보 다도 멋지게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전서 13장에서 말씀 하셨다.

“사랑은 참아줍니다.”(I고린토 1, 4)

언제부터인가 나는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에 매력을 느끼고 나의 좌우명으로 가진 지 오래다. 모든 것은 인내 없이 결실을 내지 못한다. 위대한 학문을 연구한 학자도 만인의 찬사를 한 몸에 누리는 정치가도, 위대한 성인도 바로 이 “참는 법”(참는 사랑)을 읽혔고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뭔가(?) 되어보고 싶은 충동으로 “참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운 공부가 아님을 곧 깨달곤 한다. 낫곳은 개구장이를 보면 먼저 주먹이 올라 가게 되곤 하니 말이다. 사랑으로 타일려 주는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가 아쉽다. 너무나도 불신과 미움, 오해, 그리고 복수와 원한, 투쟁과 시비로 얼룩진 우리네 사회 에 참아주는 사랑이 아쉽다.

사랑은 모든것을 가능케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서로 이해해 주는 사랑, 친절을 베푸는 사랑, 무례하지 않 는 사랑, 사실을 품지 않는 사랑,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는 사랑은 당신에게 기쁨과 용기와 위로를 주 고 크나큰 성공의 결실을 안겨 줄 것이다.

우리 서로 사랑의 사슬로 얽혀,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우리 각자의 가정과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사회발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

교육계에 황혼을 맞이한

배 처자 교장 선생님께

1946년 9월 1일 제가 전주 성심교 소위 첫 교장으로 있을때 주동 역할을 하시던 선생님이 수십년간 누적한 공훈이 많아 노공상을 쌓고 쌓아 벌써 교육계를 떠나시는 정년이 당했다니...아니 정년 퇴임이 아니라 선생님을 아끼는 뜻에서 쉬시란 영단이니. 이것은 경노 사상에서 이겠지요. 경노사상은 동서고금 문야(文野)를 막론하 고 인지상정이요 인륜의 도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는 연장자를 모시는 예의 범절을 지키는 중 특히 교육을 담당하시는 스승님들을 모시는 정성으로부터 질서있게 정년이란 한계를 두어 귀한 국보로 모시려는 뜻에서 입 니다. 옛날에는 반백자가 노상에 이고 지고 다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연소할 때는 꽃송이 같이 아름다우나 노쇠해지 면 수척하고, 눈 어둡고, 이가 빠지고, 콧물이 나오고, 허 리가 굽어, 미(美)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러나 노인의 머리는 사시로 이화(梨花)가 만발하여 눈썹인 백두산 같이 그 인생모경이 감상할만한 것입니다. 이 미(美)는 청춘이 아무리 원하 여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조로써 만들 수 없는 미 입니다. 청춘에 꽃이 피고 장년에 잎 피고 노년에 서리 오고 만년에 눈이 옵니다. 이는 천년의 미 이요 회세의 미입니다. 이 백발미의 소유자이신 선생님을 여찌 존경 하지 않으리요. 선생님은 면류관을 쓰실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양관이나 월계관에 비하 리오, 선생님의 해야될 수 없는 업적을 살펴보아 최귀의 월계관을 쓰셨으니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예지와 명철을 남달리 하느님께 홀로 받으신 선생님, 청춘시절부터 오 늘까지 춘풍추우 거처오는 동안 파란폭설 많았고 인생고 락을 철저히 맛보았으며 성공 실력은 몇번이었으며 희 비의 장면은 몇번이나 바뀌었던가. 인심세정에 통달하고 대소사물에 정통하여 탁마(琢磨)한 백옥같고 백연된 정 금같으니 자연히 지각이 생기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 범 백사에 통효하셨던 것입니다. 치마를 두른 여성이지만 남성 못잖은 선생님은 교계의 중요 인물이며 교육사업에 위대한 인물이시었던 것입니다.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 이제는 당신이 심으신 터전에 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시고 기뻐하소서.

1975. 8. 26

김 영 구 신 부 드림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 로사리아 (춘 자)

전주시 중앙동, 뉴 명보채과 앞,
전화 ⑥ 6219

*경운기·분무기·탈곡기
*트랙터·양수기·농기구 일절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전화 5116, 6114, 3547)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제로 각종한지
실크 솔입벽지 파이텍스

대동 페인트 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⑥ 5986
임 정 원(도민교)

□양지쪽□



우 리 의 소 원

—버려진 여기에 공소를—

강 무 응 (엠마누엘)

이 글은 삼례보당 관내의 익산농장 공소회장의 애절한 호소이다.

익산군 왕궁면 구덕리에 있는 익산농장에는 2,000여 음성 나환자들이 자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여기에 178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어 공소는 이루어졌지만, 공소 강당도 없다. 476만원이면 된다고 한다. 도시의 보통집 한채 값이다.

그냥 흘려넘길 이야기만은 아니지 아닐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나병환자였었지만, 실망으로 가득찬 나날을 보내면서도 조그마한 기대와 희망속에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일그러진 모습들이 남아있으나, 이제는 음성환자로 웃음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매일 매일, 시간 시간마다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고마운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참아주신 부모 형제들,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지경입니다.

작년 4월에 소록도에서 나온 저희 공소의 형제 자매들은, 작년 크마스마스에 우리 형제의 집에 모여서 지냈습니다. 남들처럼 호화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미역국을 끓여서 우리 형제들끼리 축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가지 섭섭한 일은, 공소는 공소지만, <공소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하나도 독립, 둘도 독립, 셋도 독립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공소집>을 갖는 일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렇습니다. 물론, 천주교 신자라면 누구나 평화가 그 소원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이 그 소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조그마한 소원은 <공소집>을 갖는 일입니다.

차라리 죽고만 싶었던 과거가 우리에게 있어 왔지만,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 우리였기에 이렇게 감사드리며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갖는 소원이기에 <공소집>을 갖겠다는 우리의 꿈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에, 이제 남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벼룩의 낯잡보다 나를 줄 압니다만, 그렇지를 못한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시지요. 열치없는 부탁입니다만, 도와주시지요.

요심이 (110)

미국의 국무장관은 '키신저' 한국을방문한 국방장관은 '술레신저'

미국의 거물급 장관은 이름 끝이 '신저.'

나도 미국에 가서 장관을 살아 먹으려면...

아빠 제이름을 '요심이신저'라고 갈겠어요

* 정 정 *

1975. 8월 24일자
143호. 윤정이 강론 <이배주 신부님> 맨 밑 한열천주교 주임신부를 한열 천주교 보좌신부로 정정 합니다.

윤정이 광고로 안내

1. 1회 광고료(4cm×5cm) - 1,000원
2. 1개월이상인 경우 - 1회 900원
3. 3개월이상인 경우 - 1회 800원
(단 광고는 선불해 주시는 광고만 게재합니다)

현대 광고사
*아크릴.각종간판.아취.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카메라수리

송 흥 섭 (토마스)
전화 ㉠ 9431
남 남극장과 천북신문사 비거리 중간

❖드레스 미싱 대리점❖

삼 영 미 상 회
<미싱일체>

◎ 태인상회 앞
전화 ㉠ 2 8 2 7
최 경 자 (테레사)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 (2층)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 (베드로)
◎ 육교연 중앙 시장통
(전화 ㉠ 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료. 방수액. 흑판등>

전화 ㉠ 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9월 1-3일, 가톨릭센터, 회비 3,000원)
2. 제4지구 중, 고 회장단 회의: 9월 7일 오후 1시30분 가톨릭센터에서. 댁지대금을 속히 완납요망.
3. 전주교구 교리 교사 연합회 하계 봉사 활동 마칩.
교리교사 연합회에서는 75. 8. 17~24 (오룡공소는 31일)까지 아직 공소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공소 (조촌면 내동리, 정읍 신성, 중앙, 순창, 오룡공소)를 찾아 아동교리 및 성가연습과 어른 대상의 교리를 실시하였다.
4. 사목현장 교육을 위해 8월 31일 주일에 1일 본당 신부 실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본당 김환철 신부 서학본당 김종길 신부 복자본당 함승천 신부 노송본당 김동준 신부
중앙본당 박종근 신부 덕진본당 한봉섭 신부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9월 1일 오전 11시, 가톨릭센터에서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김영진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님들은 1975년도 마지막 사도회 월례회가 되오니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안전) 75년도 마무리 작업, 76년도 본당 운영계획 새 예산안 제출, 76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기타사항
2. 방지거 삼회: 9월 1일 오후 2시30분.
3. 푸리아 월례회: 9월 7일
4. 예비자 교리 시작: 9월 7일부터
5. 주일학교 개강: 9월 6일 <토>
6. 75년도 신청한 교무금을 9월말까지는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중앙성당 대학생회 회합 실시: 8월 31일 <금> 사제관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무금 완납 (9. 14일까지) 필히 완납하여 9월말 연도말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2. 복자 부녀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3. 사도회 정기총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사도회 정부회장 선거
4. 아동 교리 실시: 9월 6일부터
□주일 미사 참여자 <남> 91명 <여> 279명 <계> 370명
◎ 지난주 성미: 2말 누계: 382.8되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76년도 예산 심의와 사도회 구성 논의가 있으니 전원 참석.
2. 신용 조합 월례회 있음
3. 오늘 주일까지 각 부서 예산안 제출 요망.
4. 아동 교리 실시: 9월 6일 <토> 오후5시, <미사> 6시
5. 담장 부족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몇주일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봉섭
 사도 회장 이현재

1. 글라라 삼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75년 회계년도가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일하신 봉헌금을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성당 신축 대지 신청자 *
진용순: 500원. 강안자, 김현갑, 임기주, 오재승: 각 1,000원. 오봉선, 정승걸: 각 2,000원, 전연주: 4,000원, 강해룡 백종홍, 박태복: 각 10,000원.
장금택: 15,000원. 김병조: 20,000원.
 계: 77,500원. 누계: 1,841,88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1. 성 안또니오 제속 형제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3. 75년도 교무금을 9월말까지 완납합니다.
4. 아동 교리 실시: 9월 6일부터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인후, 이 재열: 10,000원, 기타: 600원
누계: 10,600원 / 누계: 3,989,627원
◎ 지난주 신축 성미: 3되 누계: 227.9되.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정 부회장 후보자 추천 공고: 오늘 공식 미사후. <선거> 다음주 공식 미사후(9. 7일)
2. 신용 조합 임원회의: 9월 5일 오후 8시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 김부수 신부 임수정	사도회 임원 선출	3,385원	제 3 지구	주현동 청년회 황 등	제 3 지구 학생회 체육대회 우승	35,140원
		견진자 및 대부모 합동 면접	20,385원			각 단체 신년 예산 제출	41,535원
제 2 지구	대 윤동명 중합	사도회 각부서별 결산보고 예산편성	6,010원	제 4 지구	중 앙 덕진 서학동 전 등	사도회 월례회	55,080원
		유아 영세 성세 준비 특별 교리 예비자 교리 실시 유아 세례자 신청 요망	13,250원			안또니오 제속 형제회 월례회	22,225원
제 3 지구	고 금여	사도회 월례회	5,830원	제 5 지구	남 무순 임실장 전	사도회 정부회장 후보자 추천	11,085원
		성모회	8,170원			복자 부녀회 월례회	16,760원
						각부 예산안 제출 요망	16,785원
						글라라 삼회	45,221원
						성모회	11,700원
						사도회 월례회	4,260원
						추 사도회 탄생	원
						본당 관할 신자 회의	3,000원
						사도회 월례회 및 임원 개선	4,405원
						사도회	원